

잡지 미디어팀
제 1호
세계반값책
이웃

라운아트 8기 캠퍼스미디어팀 11월호

목차



1. 달력	p. 3
2. 프놈크라움, 쩡크니어 유치원수업 ...	p. 4
3. 프놈크라움 중학교 한국어수업	p. 6
4. 한글학교 풍물반	p. 8
5. 센터의 변화	p. 9
6. 아띠퐁퐁	p.15
7. 중간평가	p.17
8.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p.20
9. 프놈크라움 마을 소개.....	p.23
10. 캄팀의 휴가	p.27
11. 개인에세이	p.30
12. 사진전	p.34

November 2012

 프놈그라움유치원
  프놈그라움중학교
 쯙크니어유치원
  크메르어수업
  밥퍼
 빵퍼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콘서트 평가회의	3 한글학교
4 휴일	5    	6    	7    	8   	9   휴일	10 한글학교
11 아띠방, 아띠교실 꾸미기	12    아띠방,  아띠교실 꾸미기	13    가영단원과  면담 중간평가준비	14    민기생일  중간평가준비	15    중간평가준비	16   도서관프로그램 아띠풍뎡제작 간판작업 끝	17 한글학교 중간평가준비
18 휴일	19    중간평가 토레샵  방 박간사님  공항마중	20    공항마중  앙코르와트 구경	21    김형길 선생님 공항마중	22    김학용 선생님 귀국	23   도서관프로그램 아띠풍뎡제작	24 한글학교 태국으로 휴가
25 태국휴가	26 태국휴가	27 태국휴가	28 태국휴가	29 캄보디아로 복귀	30 휴식	

프놈끄라움, 쭙크니어 유치원수업



유치원 수업은 우리 아띠들에게 가장 힘든 수업중에 하나였다. 일단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데다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들이 재미없어하고 산만했다.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수업난이도가 5~6세 아이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 요소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캠팀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로 했다.

미술수업은 좀더 쉽고 간단하게 준비하였고, 음악수업은 한번에 모든걸 다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매 수업시작할때 같이 노래부르고 율동을 하여 반복을 통해서 노래에 익숙해지게끔 하였다. 또 가끔씩은 수건돌리기 등의 놀이를 통하여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그 결과 요즘은 아이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재미있어 한다. 아직도 의사소통의 어렵고, 조금만 방심하면 산만해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초창기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이 페이스를 유지하여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수업을 해 나갈 것이다.

캠팀의 생각



한결

10월 달에는 유치원수업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 색종이 수업, 노래, 춤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전혀 따라오지 못해 우리가 도대체 왜 유치원에 가 수업을 해야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순전히 '내' 입장에서 이걸하면 좋아하겠다 생각하고 행동했지, 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걸 원하고 재밌어할까 라는 고민이 부족했다.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우리가 준비한 수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원하는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모자이크, 색색깔의 물감을 떨어뜨리면 빨대로 부는 미술수업, 그리고 노래와 춤수업은 한 시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작할 때 노래부르고 끝날 때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한달간 수업했다. 그랬더니, 정말 이제는 아이들이 모든 수업을 잘 따라하고 재밌어한다! 5~6살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어른' 의 입장에서 수업을 했던 10월과는 달리 '아이들' 의 입장에서 가르치려고 노력하니 그 빛을 발하게 된 거 같아 기쁘다.



박지현

교육 활동에서 제일 힘들었던 유치원 수업. 왜 제일 재미있는 수업 내용을 준비해 갔는데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들끼리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너무 어려운 내용을 준비해 간 것은 아닐까?..... 아이들의 수준을 맞추는 것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후에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자세하고 시각적인 예를 들어 수업을 진행했다. 그렇게 진행했더니 정말 신기하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밌어 하는 모습에 요즘은 '아.. 또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이건 지켜야지' 하는 문제에 있어 아이들에게 완강하게, 정색하며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는 다정스럽지만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절차에 따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조민기

유치원 수업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 하니 수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 같다. 11월에는 아이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난이도를 조절하고 유치원 선생님의 도움도 요청하여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있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다.



고용석

요즘 재미있는 수업 중에 하나이다. 아이들이 실로폰 소리를 신기해해서, 실로폰을 연주하면 집중하고 듣는다. 그래서 실로폰을 연주하면서 머리,어깨,무릎,발 이나 환경송 같은 노래들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한다. 미술수업도 물감을 이용한 여러 수업을 하니 아이들이 좋아한다. 게다가 생각보다 작품들이 예쁘고 멋있다. 뿌듯하다.

프놈끄라움 중학교 한국어수업



프놈끄라움 중학교 한국어수업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었다. 초반에는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노트에 적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과 떠들고 놀아서 수업분위기가 산만했었다. 게다가 아이들의 수준차도 커서 잘하는 아이는 곧잘 하지만,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수업 난이도를 맞추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학생 모두에게 한글로 된 이름표를 나누어주고, 수업 중간중간에 이름을 부르며 지금까지 했던 내용 질문을 하니 아이들이 대답하려고 수업에 열심히 집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어수업 노트를 나눠주니 수업내용을 열심히 적는다. 수업에 관심없었던 아이들도, 계속 질문하고 가르쳐주니까 점점 수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좋은 변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더욱 더 수업에 관심갖을 수 있게 노력할것이다.

캠팀의 생각



한결

초반에는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힘들었다.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제법 수업을 많이 따라와서 뿌듯하다. 칠판에 적은 것을 아이들이 노트에 예쁘게 적은 걸 볼때는 힘이난다. 하지만 아직도 수업 난이도 조절하는게 힘들다. 나는 이 정도는 쉽다고 생각해서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을 때가 종종 있다. 좀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야 겠다.



박지현

중학교에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반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아 수업 진행도 어렵거나, 수업도 못하고 돌아갔던 날도 있었다. 그러다 반을 제대로 나누고 내가 수업 할 반이 정해져서 수업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얼굴도 익히고, 이름도 외우게 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 나도 그리고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프놈프라움 중학교에 우리들이 직접 가서 아이들의 다양한 문화를 보고, 같이 노는 것도 나에게 가치 있는 경험이다.



조민기

처음 중학교 한글교육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준비했다.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고 나 스스로도 반성하며 한글교육과 이곳 학교의 정규수업을 우리가 진행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아이들에게 이름표를 나누어주고 이름도 외우면서 아이들과 친해지고 수업도 나름대로 재밌게 진행되고 있어서 즐겁다.



고용석

선물의 힘은 컸다. 노트를 나눠주니 아이들이 수업내용을 적기 시작했고, 질문해서 맞춘 학생에게 사탕을 주니 너도나도 맞추려고 수업에 집중한다. 초기엔 아이들이 너무 집중을 안하길래 좋지않은 여건과 상황 탓을 했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다. 아이들을 더 집중하게 끄 하는 그런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노력하면 모든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공부 열심히 할 것 같다.

한글학교 풍물반



캄보디아 시엠립에 사는 한국교민들의 자녀를 위해 세워진 한글학교!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문화교육을 할 여건이 안되어 오직 '국어' 교육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공부만 하러와야한다는 인식이 커 한글학교에 오는걸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이라도 학교에 오는걸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아이들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데 가르쳐줄 선생님이 안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라운아씨의 한결단원이 아이들에게 풍물을 가르치겠다고 자원하였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때 풍물동아리를 하며 오랜시간 풍물을 배운 경력으로 한국에서 악기구입부터 시작해 가르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악기수의 제한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배우진 못하지만, 고학년을 중심으로 5명이 10월말부터 장구, 북, 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다른 아이들보다 1시간 일찍 학교에와 사물놀이를 배우며 연말에 있는 시엠립 한인회 축제때 꼭 공연을 하고싶다는 한글학교 아이들! 한국의 전통악기인 사물놀이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한글학교에 오는 것을 지루해하던 아이들이 이젠 학교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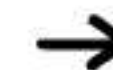
김학용 원장님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오시고 나서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센터시설의 전반적인 변화이다. 센터시설 중 낡거나 부서진 곳은 새롭게 교체하고, 미간상 안좋은 부분은 페인트칠을 다시하고 예쁘게 꾸미는 등 여러가지 작업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아띠들도 동참하여 여러 작업을 도왔다.

2. 놀이터



기존의 놀이터는 철판이 떼어졌거나 페인트칠이 벗겨져서 녹슨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모래가 많이 없어서 바닥이 들어날 정도였다. 너무 낡은 놀이기구는 처분하고, 기존 놀이기구의 페인트칠을 새로하고 모래를 새로 깔았다. 새롭게 단장 된 놀이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은 앞으로 아띠가 많아서 관리할 예정이다.

2. 도서관 외부



도서관 현판이 색이 바래서 글씨가 잘 보이지가 않았다. 그리고 도서관 앞 벽돌바닥이 고르게 도일지가 못하여 비가 오며 물이 고여서 썩고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도서관 현판을 교체하고, 벽돌바닥을 다 들어내어 벽돌을 하나하나 다시 맞추어 바닥을 새로 깔았다. 또 더러워진 벽을 새롭게 페인트칠 하였다. 놀이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관리는 아띠들이 할 예정이다.

3. 도서관 내부



도서관 2층 천장이 뜯어져 있는 곳이 많았다. 아띠교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의자창고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이 쌓이고 더러운 곳이 많았다. 이번 기회에 천장을 수리하고, 아띠교실을 새롭게 꾸몄다. 쓰지 않는 의자는 도서관 1층창고로 옮기고 사용하는 의자만 정비하였다. 또 사무실에 있던 안쓰는 캐비닛을 교실로 옮겨서 수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게 하였다. 또 교실마다 현판을 붙여서 어떤 교실인지 한눈에 알수있게 하였다.

4. 아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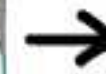
아띠들을 위한 공간인 아띠방은 상태가 좋지 않았다. 온갖 잡다한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이참에 아띠방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생각에 물건들을 창고나 아띠교실로 옮기고 깨끗히 청소하였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놀러와도 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아띠방에 물건을 거의 두지 않았고, 그래서 물건분실로 인해 아이들을 의심하게되는 일을 없게끔 만들었다.

5. 매트설치



어떤 분이 매트를 다일에 후원해 주셨다. 원래 방과후 태권도 교실에 쓰라고 했던 것이지만 매트는 유용한 곳이 많았다. 일단 체육관에 매트를 깔아서 태권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른 운동을 할때에도 좋다. 게다가 도서관 1층에도 매트를 설치함으로써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편히 앉거나 누워서 책을 보기 편해졌다. 매트만 설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도서관을 많이 찾게 되었다.

6. 간판 페인트칠



다일공동체 도서관 앞쪽에는 다일을 표시하는 간판이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강한 햇빛으로 인하여 색이 다 바래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간판을 교체하려 하였지만 간판 교체 비용이 400달러 정도가 든다고 하여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캄팀의 용석단원이 페인트칠을 할 수 있다고 하여서 페인트칠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간판 위치가 너무 높아서 불가능 할 것도 같았지만, 트럭 위에 사다리를 놓는 방법으로 페인트칠을 할 수 있었다.

아띠팡팡



- 다일공동체 밥퍼에서는 하루에 500개 정도의 식판을 닦는데 캄보디아팡팡으로 닦을 시, 너무 강한 세정력으로 환경은 물론 아이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EM발효액, 소금, 설탕, 쌀뜨물을 이용한 아띠팡팡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아띠팡팡은 기기 아띠들이 추진했던 프로젝트로 기기 아띠들은 EM발효액이 없어서 아띠팡팡을 만드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기기의 조언을 듣고 한국에서 EM발효액을 협찬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일반팡팡+아띠팡팡을 섞어 사용하면 EM 발효액의 유익한 미생물이 환경과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처음 캄보디아에 와서부터 아띠팡팡을 제작하였지만 많은 문제들로 인해 매일매일 사용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일이다.

팀원들끼리 아띠팡팡에 넣을 EM발효액, 소금, 설탕의 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띠팡팡을 설거지 전에 넣을 것인가, 설거지가 끝나고 하수구에 팡팡을 버릴 때 아띠팡팡을 넣을 것인가부터 현지 스텝들에게 아띠팡팡은 냄새나는 (실제 아띠팡팡은 막걸리 냄새 비슷하게 남), 거품이 적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꼭 넣어야 하는거야? 라는 반응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지스텝들이 아띠팡팡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기에 앞으로 현지스텝들에게 캠페인, 환경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아띠풍뎡 만드는 법



2. EM발효액, 소금, 설탕넣기



3. 흔들기



4. 2주동안 햇빛이 없는 곳에 놓아두기



1. 쌀뜨물을 페트병에 담고



5. 설거지할 통에 넣으면 완성^^

중간평가

중간평가를 위해 이번 캄보디아로 KB에서 직접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우리 캄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구나라는 뿌듯함도 들었습니다. 11.18에 KB사회공헌부 팀장님과 차장님 그리고 YMCA 이충재 실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첫날은 간단한 미팅을 하고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다음날 11.19에 점심을 드시고 본격적인 중간평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과 앞으로의 플랜, 개인생각들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가 끝난후 부족한 점이나 잘한 부분에 있어 많은 피드백을 받고 앞으로 남은 기간을 더 잘 보낼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또 중간평가 다음날 이충재 실장님과 우리 아띠들은 함께 앙코르왓을 관광하며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수 있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중간평가 캠팀의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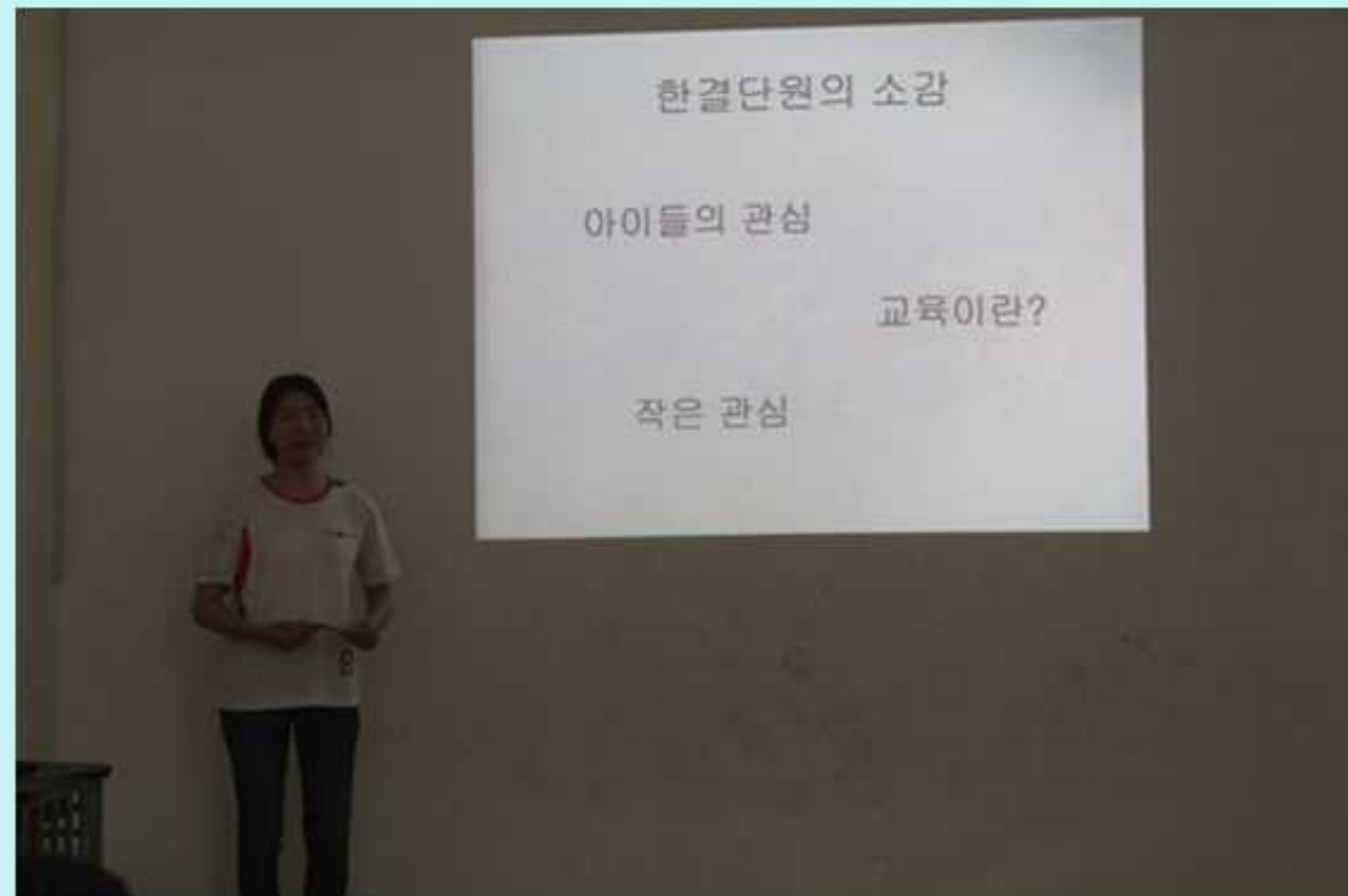


박지훈 단원

어느새 중간평가 기간이 다가왔다는 생각에 멍-하면서도,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정신없이 끝난 중간평가. 사실 발표 했을 때 너무 흥분해서 내 생각을 더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발표하고 싶었는데....아...좀 부끄럽다.... 그래도 발표한 내용처럼, 나는 지금 좀 행복하고,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차분히 아이들과 해나갈 예정이다. 좀 더 욕심 부리면서 다양한 활동과 내가 하고자 했던 프로젝트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나가야지. 내 생애 가장 뜨거운 날들, 우리 생애 가장 뜨거운 날들을 위해 앞으로도 짹짹!!!웃으면서 활동해야겠다^^

한결 단원

중간평가를 준비하며 사실 정말 겁을 먹었던 거 같다.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한국으로 귀국을 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머릿속에 걱정만 가득했다. 그런데 우리가 2개월 반 동안 했던 활동들을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발표가 아닌, 우리들 스스로가 활동을 정리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하는 많은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될까 얘기하면서 조금은 잊혀져가고 있던 라온아띠의 정체성과 힘을 되찾은 것만 같았다. 해이해질수도 있는 2개월 반이라는 시간을 중간평가를 통해 내가 이곳에 왜, 무엇을 하러 온 것인지, 그리고 '교육' 이 주는 의미를 깊게 사유해볼 수 있어 중간평가는 내게 값진 시간이었다.





조민기단원

중간평가를 위해 KB에서도 온다니 뭐든지 잘해야겠다고 생각되고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부담감을 느꼈다. 하지만 준비하면서 내가 여기 왜 왔는가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이제까지 해온 활동들에 대해 또 앞으로 해나갈 활동들에 대해 많이 팀원들과 이야기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간평가를 통해 많은 피드백을 받아 앞으로의 활동들에 대해 더 잘 해나갈 수 있다 라는 자신감도 생겼다.

고용석 단원

활동을 하면 할 수록 조심스러워 진다. 이곳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다가갈때 문화가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때문에 사소한 오해가 생긴다. 게다가 소득수준이 분명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된다. 무언가를 같이 사먹거나 놀러가려 할때 너무 비싼것을 사면 그 사람들이 빈부격차를 느끼게 될것이고, 그렇다고 돈을 쓰지 않으면 돈많은 사람이 쪼잔하다고 들을 수도 있다. 뭐든지 상황에 맞게 적당히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렵다. 그렇다고 생각만 하며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욕심이 많아 하고싶은게 많고, 해야할 일도 많은데 아직 별로 한일이 없는 것 같다. 중간평가를 계기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2탄

결이의 친구

마이니응 (11세)



- 마이니응과는 쌀라아띠 한국어수업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 한국어를 배우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봐 “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더니 너무 기뻐하던 마이니응. 배우러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나보다 더 기뻐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였다. 아침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넉끄루! 텅아이니 피어사꼬레 리은?” (선생님! 오늘 한국어 배우나요?)이라고 묻고 나와 함께 무엇을 하든 즐거워하는 마이니응! 아이들의 텅세로 인해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항상 씩씩하게 지내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해결하려 노력하는 이 아이를 통해 오히려 내가 더 소중한 배움을 얻어간다고 느낀다. 우리 남은 2개월 동안 더 친하게 지나자~!

용석이의 친구 레아 (8세)



- 사진에서 하얀 별이 박힌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친구이다. 원래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아이라서 처음에는 친해지기 힘들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 몇번 다가가서 같이 놀았더니 금새 친해지게 되었다. 요즘은 센터에 있으면 친구들을 데리고 먼저 다가와 같이 놀자고 한다. 특별한 놀이를 하는 건 아니다. 그냥 술래잡기, 카드뒤집기 등 간단한 놀이를 하지만 같이 놀면 정말 좋아한다. 레아 덕분에 다른 아이들과도 많이 친해졌다. 조곤조곤한 매력이 있는 친구이다.

민기의 친구 싸룬 (18세)



- 싸룬은 최연소 빵퍼 스텝으로서 센터에서는 귀염둥이 막내이다. 같이 스텝한국어도 하고 롤러장도 놀러가고 빵퍼일도 같이하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서로 장난도 많이 치면서 친해졌다. 장난치는걸 좋아하는 싸룬은 언제나 인사를 옆구리 찌르거나 엉덩이 때리기로 한다. 처음엔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젠 안하면 섭섭하기도 하다. 둥글둥글한 성격에 외모까지 둥글둥글 통통한게 매력인 친구다.

지훈이의 친구 네악싸 (10세)



- 십자수반 최고의 모범생이자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친구 늘 사탕을 쥐도 동생에게 껌질을 벗겨 건네주고, '네악싸 너도 좀 먹어' 라며 사탕 하나를 더 건네줘도 동생에게 주는, 옷을 나눠 줄 기회가 있어 '네악싸 너도 어서 골라' 라고 했을 때, '더 작은 옷은 없어? 내 동생이 입을 만한 옷' 이라 이야기 하는 네악싸는 처음 센터에 왔을 때부터 나의 곁에서 늘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나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밝게 웃어주던 친구였다. 아띠방에 혼자 있을 때나,

일을 하고 있을 때 늘 조용히 와서 이것저것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네악싸.

어머니께서 일을 하셔서 7개월 된 동생을 보는 것은 늘 네악싸의 몫이라, 십자수반에 와서도 30분은 동생을 보고, 30분 동안만 수업에 제대로 참여 할 수 있는데도 제일 먼저, 예쁜 작품을 만드는 내 친구 네악싸! 늘 응원해*.*



포농끄라움 마을 소개 2탄



다일공동체 센터 앞에 있는
집으로 다일에서 메인요리를
담당하시는 요리사
른슬레이엄과 밥퍼일을
도와주는 세달, 그리고 조카들이
살고있는 집이다. 집앞에는
평상이 있는데 근처 사는
사람들이 놀러와 앉아
얘기하거나 밥을 먹는다.

른슬레이엄집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쨌잉, 쨍, 쨍
세남매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
처럼 이곳 집들은 바닥을 나무판자나 대나무로
뜨엄뜨엄 깔아서 통풍이 잘되게 되었다.
하지만 얇은 물건은 잘 간수 하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질수도 있다. 그리고 벽을 철판으로 대거나
잎사귀를 엮어서 벽을 만든다.



센터 바로 뒤에 있는 집으로 사내커플인 노부야, 싸로앗네 집이다. 집바로 앞에는 해먹이 있어서 스텝들이 일과가 끝난 후에는 낮잠을 자기도 한다. 이 집에서 스텝들이 같이 점심을 먹기도 하고 한국어수업의 장소로 이용하기도 한다.

밥퍼일을 도와주는 먼네악네 집이다. 이 집은 돼지를 키우는데 신기하게도 돼지우리가 집밖에 있는게 아니라 집 안에 있다. 요번에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새끼돼지들이 많다.



센터 옆에 있는 빵퍼스텝 쟈니의 집이다. 센터
공사일을 도와주는 남편 쏘툰과 아들 세이하와
같이 살고있다. 다른집과 다르게 벽이 시멘트로
되어있고, 그물침대가 아닌 침대가 있다.

프놈그라움에서는 해먹을 흔히 볼 수 있다. 거의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집마다 해먹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자주 해먹에서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다. 아래 사진과 같이 해먹카페도 많다. 의자와
테이블에서 커피를마시는게 아니라 해먹에 누워서 마실수 있도록
되어있다. 빵퍼스텝인 아론네 집도 해먹카페를 운영하고있다. 25



프놈끄라움마을 중앙에 있는 프놈(산)이다. 산위에는 유적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찾기도 한다. 캄보디아는 산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평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산에 올라가면 프놈끄라움마을은 물론 시엠립 시내까지 한눈에 볼수있다.

이곳은 집의 개념이 우리와 약간 다르다. 집은 거의 열려있어서 집주인이 아니라도 마음껏 드나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네 집이 아니더라도 불쑥 들어가 쉬거나 누워서 TV를 보기도 한다. 또 집마다 동물들이 많다. 강아지는 물론 소, 오리, 닭 등을 키운다. 그런데 우리에게 놓고 키우는게 아니라 그냥 집앞에 풀어놓는다. 그런데도 도망을 안가는게 신기하다.

캠팀의 휴가(태국 여행)



우리는 캄보디아 물축제 기간인 11,27~11,29을 통해 한주 휴가를 받은 우리는 11,24~11,29 동안 비자트립 겸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24일 한글학교가 끝나고 숙소에서 2시에 출발한 우리는 버스를 타고 태국 국경 포이펫에 도착 시엠립에서 방콕까지의 차를 예약했지만 태국 국경 포이펫에서 차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회사문이 닫았으니 돈을 다시 지불하고 방콕행 차를 타라는 사기도 당했으나 긴 협상 끝에 100바트에 2층 버스를 타고 방콕 카오산 로드에 밤10시경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 한 다음날 우리는 오전에 휴식을 취한 뒤 오후에 주말에만 열린다는 짜뚜짜 주말 시장을 구경했다. 저녁이 되자 돌아가려고 했으나 더 쇼핑해야 된다는 지훈단원의 주장에 짜뚜짜 시장에서 좀더 시간을 보낸뒤 방콕 최고의 패션 1번지인 씨암 스퀘어로 갔다. 씨암 스퀘어에 있으니 정말 한국의 명동에 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날 우리가 느낀 방콕은 문명이었다.



11.26에 우리는 태국의 명문대학인 탐마삿 대학에 가서 캠퍼스를 구경하였다 한국의 대학교와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대학에 교복을 입고 다닌다는것!!

태국의 대표적인 볼거리인 왕궁으로 갔다. 건축 구조물들이 캄보디아의 앙코르왓과는 다른 화려함과 정교함을 느낄수 있었다. 그리고 왓아룬을 갈려고 배를 타려고 했지만 시간이 늦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려서 강건너편에서 보는것만으로 만족해야했다.

11.27에 태국 전통을 유지한 유럽풍의 궁전인 위만메에 갔다. 이곳에도 반바지를 입지 못하는 것을 몰랐던 우리는 100바트를 지불하고 치마를 사서 돌려야만 했다.

강간너편의 왓아룬을 뒤로하고 차이나타운으로 넘어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태국에서 느낀 중국의 향기는 색달랐다.

위만메를 다본 후 가까운 동물원에 들렀다 아띠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1.28에 방콕을 떠나 방콕에서 130km 떨어진 깐짜나부리로 갔다. 태국과 버마를 잇는 415km의 철도의 한구간인 콰이강의 다리에 갔다. 두차례나 연합군의 포격으로 파괴 되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복구하였다고 한다. 다리 뿐만 아니라 전쟁 유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또한 콰이강이 흐르는 강물을 따라 강변에 펼쳐져 있는 수상가옥들을 볼 수 있었다. 캄보디아 톤레삽 호수에서 본 수상가옥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었다.

깐짜나부리에서는 싸이옥 폭포같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공사에 1000명의 사람이 투입되어 70%의 사람들이 사망해서 죽음의 철도로 불리는 헬 파이어 패스같은 사람이 만든 역사적 장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11.29 아침에 우리는 카지노 버스를 타고 태국 국경에 가서 비자를 받은 후 캄보디아로 넘어오는 것으로 여행을 마무리했다. 태국은 생각보다 물가가 비쌌고 캄보디아와 비슷한 환경이었던 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캄보디아는 아직도 세계에서 빈민국에 속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역사와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행하는 동안 계속 캄보디아 생각이 났고 우리가 캄보디아에 많은 정이 들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태국 여행을 하는 동안 캄보디아에서 느낄 수 없던 현대문명을 즐기다가 돌아 왔다.

개인 에세이

한결 단원

11월을 마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교육봉사' 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교육봉사를 하며 처음에는 무조건 잘 가르치고 아이들도 열심히 배우는 것이 참교육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니 교육이란 무조건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다음에 볼 때 이름을 불러주며 "오늘은 너의 머리가 예쁘다, 옷이 예쁘다, 학교에서 오늘은 뭐 배웠니?" 라는 '작은 관심' 이 교육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 영어를 잘 가르쳐주었던 선생님보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항상 조언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시던 선생님을 더 좋아했던 것처럼, 아이들도 나와 똑같은 거란 생각이 들었다. 좋은 선생님이란 잘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 이라는 것..... 남은 2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쏟으며 내 말한마디로 인해 어찌하면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를 내 생애 뜨거운 날들을 보내고 싶다.

박지훈 단원

중간평가를 통해서 나를 진지하게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나니 왜 이리 힘이 쭉 빠지던지.... 며칠 동안 많이 힘들었어. 뭔가 더 열심히 해야지 보다는 그냥 멍한 기분이 들어서 옆에 사람들이 계속 '피곤해? 힘들어?' 라고 물어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야.

그러다 거의 일주일간의 태국여행에서 다시 힘을 충전하고 열심히 해야지! 힘!!이라며 계속 외치면서 이렇게 에세이를 쓴다. (방콕은 정말 문명의 도시였어)

이번 달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힘들었던 부분을 꺼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 나 혼자 끔끔 앓았던 부분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상처받고, 상처주고, 그러면서 나한테 실망하고 사람들한테 겁먹고 앞으로 어떡해해야 할지 몰랐을 때도 있었고 나는 왜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현명하지 못할까? 하는 자책감도 많이 갖고... 엉엉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지?

앗! 벌써 9기 모집 기간이더라. 나는 시험기간에 일주일동안 자소서 쓰면서 붓 떴서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엄청 생각했는데, 난 지금 엄청나게 간절했던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생활을 좀 더 소중히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의 다짐 많은 아이들과 교감하고 오겠다라는 것을 늘 실천하면서 말이야. 요즘엔 다양한 연령의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기쁘고 재밌어. 역시 언어가 중요한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번 달은 몸이 아팠던 날이 많아서 활동하는 데 힘들고, 노는 데도 힘들었는데 몸 관리에 신경 써야겠어.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늘 씩씩하게 웃으며 활동해야지.^.^

조민기 단원

중간평가가 지나고 11월이 지나니 정말 이제 2달이 남았다. 실감이 나지 않고 아직 많은 시간이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요즘은 모든 일들이 재밌게 느껴진다.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도 대화도 점점 늘어가면서 내가 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행동에도 웃어주고 길을 지나가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단지 한국에서 온 봉사자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흥미꺼리 정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유는 아무 필요 없다고 느낀다. 내가 그들과 즐겁고 재밌고 때론 지치기도 하지만 내가 이곳 캄보디아에서의 모든 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은 2개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웃어주고 이름 불러주고 함께할 것이다.

고용석 단원

보고서를 쓸 때마다 이제까지 무엇을 했나 되돌아 보게 된다. 이제는 적어도 아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긴 한 것 같다. 아이들과 노는 게 하루일과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고, 아이들도 나에게 놀자고 하는 게 하루일과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닌 프놈크라움 사람들과는 아직 별로 친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냥 가다가 보이면 인사하는 게 전부다. 게다가 센터주변이 아닌 센터와 좀 떨어진 프놈크라움 중학교 주변에 가면 아직도 그냥 낯선 외국인이 된다. 매주 왔다갔다 했어도 사람들과 별 말 안했기 때문일까.. 앞으로는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싶다.

이젠 정말 2달 밖에 안남았다.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 허나 하나 문제가 있다. 습관이란 놈 때문이다. 습관이란 건 정말 무섭다. 처음부터 열심히 하던 것은 별 무리 없이 열심히 하게 되고, 처음부터 대충했던 것들은 끝까지 대충하게 된다. 이러면 안되는데 하면서도 습관이란 건 바꾸기가 힘들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제대로 해야될 필요성을 느낀다.

사진전













